

Flash Note

2022-02-10

전기전자
고의영(2122-9179)
ey.ko@hi-ib.com

전기전자 (Overweight)

[갤럭시 S 언팩] 부활한 노트, 가격 동결, 공격적 출하

갤럭시 S22 에 대한 관전 포인트

이번 모델은 가변형 픽셀 및 OIS 기능 강화로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성능이 개선되었고, 전작이 발열 제어 실패로 성능 유지력에 문제가 있던 만큼 베이퍼 챔버 등 방열 솔루션이 강화되었다. 포지셔닝, 가격, 출하 전략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.

① **부활한 갤럭시 노트**: S22 울트라라는 사실상 노트 시리즈를 계승했다. 모서리가 각진 디자인이 채택됐으며 S Pen 수납 공간도 있다. 이로써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전략은 상반기 갤럭시 S 와 (사실상의) 노트, 하반기 갤럭시 Z 로 정립되었다. 폴더로 온전히 흡수되지 못한 기존 노트 수요층이 이번 울트라 모델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된다. 물론 Fold 3 도 S Pen 을 지원하고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하나, 높은 가격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Bar 타입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상기해본다.

② **아이폰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...**: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. 아이폰 가격이 동결되며 판매 호조를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. 경쟁작과 달리 갤럭시 S 시리즈의 연간 판매 레벨은 하향 중이다. 전작인 S21 의 출시 당해년도 판매량은 2,430 만대로 부진했다. 참고로 3년 전 눈높이는 3,500 만대였다[그림 2, 3].

③ **공격적인 출하 확대를 기대**: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연간 3,000 만대 회복 여부가 관심이다. 올해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. 카운터포인트 기준, 작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은 19%인데, 점유율이 20%를 밑돈 것은 3년 만이다[그림 4]. Huawei 가 퇴출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더 아쉬움이 남는다.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. 이에, 올해는 M/S 확대를 위한 공격적 출하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며, M/S 게임을 위해서는 플래그십이 돈을 벌어야 한다.

연간 Sell-in 2900 만대, Sell-through 2700~2800 만대 전망

주요 부품사들의 양산 계획을 종합해보면, 올해 연간 갤럭시 S22 시리즈의 Sell-in 은 2,900 만대 내외, Sell-through 는 2,700~2,800 만대로 전망된다. 판매량 기준 전작 대비 +11~15% 성장하는 것이다. 주된 이유로, ① S-Pen 내장에 따른 노트 수요층 흡수, ② 후면 강화 유리 커버 채용 및 IC 가격 상승 등 원가 부담 요인에도 동결된 가격, ③ 부품 수급난으로 수요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웠던 전작과 달리, 현재는 탭티어 중심으로 AP 부족의 정도가 완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. 만약 초기 반응이 긍정적인 경우 3월 중순 이후 증산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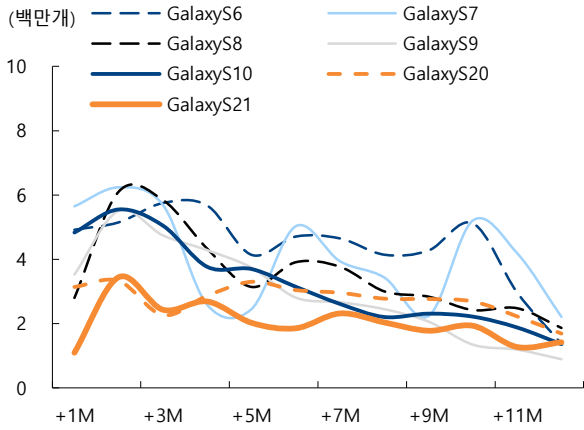
당사는 카메라모듈 공급망에 주목한다. 여전히 스마트폰의 차별점이 카메라임을 이번 언팩에서도 확인했다. 엠씨넥스(097520), 파트론(091700) 등의 수혜를 전망한다. 그동안 플래그십 후면 카메라는 삼성전기, 삼성전자(내작) 등 상위 업체의 몫이었으나, 중견 카메라 업체들의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.

표 1.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주요 사양

	갤럭시S22 울트라	갤럭시S22/S22+	갤럭시S21 시리즈	갤럭시S20 시리즈
이미지				
공개일	2022.02	2022.02	2021.01	2020.02
디스플레이	1440x3080, 6.8", 500ppi	S22: 1080x2340, 6.1", 422ppi S22+:1080x2340, 6.6", 390ppi	S21: 1080x2400, 6.3", 418ppi S21+:1080x2400, 6.7", 393ppi S21U: 1440x3200, 6.8", 516ppi	S20: 1440x3200, 6.2", 563ppi S20+: 1440x3200, 6.7", 524ppi S20U: 1440x3200, 6.9", 509ppi
DRAM	12GB	S22: 8GB S22+: 8GB	S21: 8GB S21+: 8GB S21U: 12GB/16GB	S20: 12GB S20+: 12GB S20U: 12/16GB
NAND	256/512GB/1TB	S22: 256GB S22+: 256GB	S21: 256GB S21+: 256GB S21U: 256/512GB	S20: 128GB S20+: 256GB S20U: 256/512GB
후면카메라	108MP(wide)+10MP(10x tele) +10MP(3x tele)+12MP(U/W)	S22: 50M+10MP(tele)+12MP(U/W) S22+: 50M+10MP(tele)+12MP(U/W)	S21: 12M+64MP(tele)+12MP(U/W) S21+: 12M+64MP(tele)+12MP(U/W) S21U: 108MP(wide)+10MP(periscope) +10MP(tele)+12MP(U/W)	S20: 12MP+64MP(Tele)+12MP(U/W) S20+: 12MP+64MP(Tele) +12MP(U/W)+ToF S20U: 108MP+48MP(Periscope) +12MP(U/W)+ToF
전면카메라	40MP, AF	S22: 10MP, AF S22+: 10MP, AF	S21: 10MP, AF S21+: 10MP, AF S21U: 40MP, AF	S20: 10MP, AF S20+: 10MP, AF S20U: 40MP, AF
칩셋	SEC Exynos 2200 QCOM Snapdragon 8 Gen1	SEC Exynos 2200 QCOM Snapdragon 8 Gen1	SEC Exynos 2100 QCOM Snapdragon 888	SEC Exynos 990 QCOM Snapdragon 865
배터리	5000mAh	S22: 3700mAh S22+: 4500mAh	S21: 4000mAh S21+: 4800mAh S21U: 5000mAh	S20: 4000mAh S20+: 4500mAh S20U: 5000mAh
가격	\$1,199	S22: \$799 S22+: \$999	S21: \$799 21+: \$999 S21U: \$1,199	S20: \$999 S20+: \$1,199 S20U: \$1,39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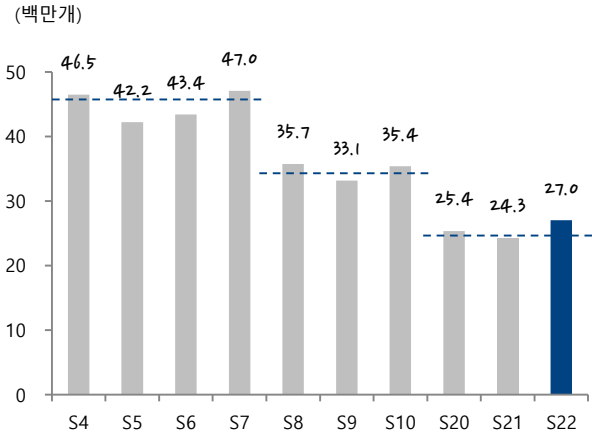
자료: 삼성전자, GSM Arena, 하이투자증권

그림1. 갤럭시 S 시리즈의 출시 이후 Sell-through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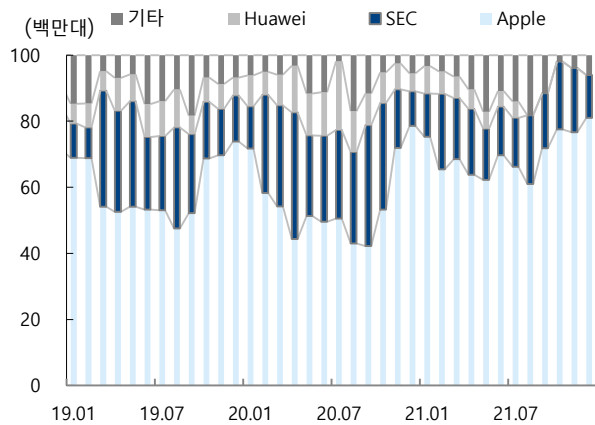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point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. 갤럭시 S 시리즈별 출시 당해년도 판매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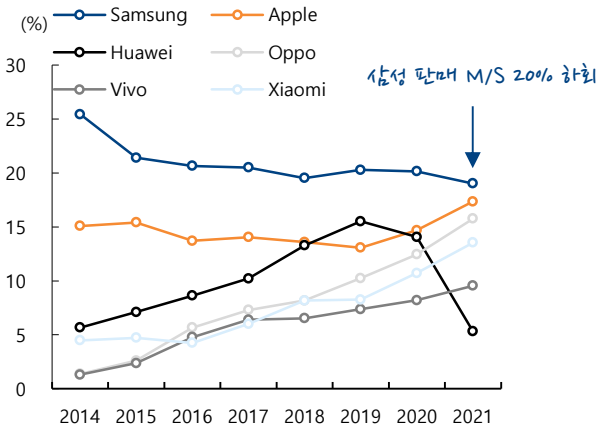
자료: Counterpoint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| 주: FE 모델은 제외

그림3. 월별 \$600 이상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추이



자료: Counterpoint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
주: 도매가 기준

그림4. 주요 세트업체의 연간 스마트폰 판매 M/S 추이



자료: Counterpoint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고의영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
 - Buy(매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
 - 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 - 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기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 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21-12-31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 (%)	95.4%	4.6%	-